내 인생의 폿대

삼육의명대학동물자원과윤은정

현장체험실습을 위해 가락동공판장으로 신청을 하게 되었다. 처음 공판장 건물에 들어갔을 때 약간 비릿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. 그리 좋은 냄새는 아니었지만 한 달 동안 실제로 체험하고 많은 것을 볼 수 있다는 생각과 정신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런 냄새는 잊어버렸다. 실습생 일행 4명은 냉장실 안에 들어갔을 때 천장 레일에 있는 수많은 소·돼지도체를 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.

실습중인윤은정양

등급판정업무 실습을 보고 듣기만 하다가 며칠 후 직접 소 도체의 등심단면적을 측정해 보았는데 그렇게 쉽지는 않았다. 또한 지금도 헷갈리지만 등급사님들의 지속적인 반복 교육을 통해 돼지도체 성별은 구분할 수 있었으며 교육이 끝난 지금도 나름대로 성취감을 느끼고 있다.

또한 축산물등급판정소 본부와 양주골축산, 한냉LPC 등을 견학하였다. 첫 번째로 군포에 있는 본부에서는 축산물등급판정소의 역사, 업무 및 비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통해 어떤 팀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 자세히 알 수 있었다. 특히 시범사업 중인 쇠고기이력추적을 위한 DNA연구소가 있었는데, 소의 생산·도축·가공·판매단계까지 모든 과정에서 추출한 DNA 관리를 통해 우리 국민들에게 축산물이 더욱 안전해지리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. 두 번째로 양주골축산에서의 계란판정견학은 계란의 품질과 소란에서부터 왕란까지의 크기변화에 따른 산란계의 산란에 이르는 과정, 계사에 대한 관리법까지 전반적인 것을 볼 수 있었으며 세 번째로는 현대화된 도축장인 한냉LPC를 견학함으로써 우리나라 축산의 미래를 내다 볼 수 있었다.

정신없고 바쁜 업무 중에도 민원인에게 항상 밝은 표정과 인사로 대하는 선배님들을 보면서 친절한 서비스와 침착하게 응대하는 인내심과 배려에 감탄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.

비록 한 달의 짧은 기간 동안 현장실습을 하면서 돼지도체의 성별을 구별할 수 있다는 정도 밖에는 잘 모르지만 소비자에게 공정하고 깨끗한 축산물이 전해지기까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노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.

소교육모습

돼지교육모습